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 설 연휴로 44호는 2.2일에 발간됩니다.



최신 GVC 해외 이슈

【공급망·투자, 미국·중국】 美 정부의 기업 국외 투자 통제, 생명공학·배터리는 제외 전망

【원자재, 중국】 中 '리오프닝'으로 구리 등 원자재 가격 강세

【반도체, 일본】 TSMC, 일본에 제2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 검토

【반도체, EU】 TSMC,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

【반도체, 대만】 대만판 반도체법 통과, R&D 세액 공제 15% → 25% 등 지원 연내 시행 예정

【구리, 인도네시아】 인니, '23.6월부터 구리 원광 수출 금지

【팜오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EU의 '삼림 공급망 실사법' 시행 대응으로 팜오일 수출중단 시사

【보조금, EU】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 IRA법 대응으로 보조금 제도 개편 제안



GVC 뉴스 더하기

- ① 2023년 한-미 주요 공급망 이슈
- ② EU, 美 IRA 대응 Clean Tech Act 입법 추진



GVC 돋보기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을 위한 비축사업 1편 - 석유 비축



GVC 전문가

핵심광물 공급망 이슈와 주요국의 광물 확보전략 2편



더 찾아보기

- ① 미국 前 상무부 차관보 Kevin Wolf가 말하는 수출통제 프로세스 2편
- ②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독자 투고)



GVC 소식통

- ① 공급망 관련 지원 사업 안내
- ② 중국 단기비자 일시 발급 중단 관련 지원 사업 안내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최신 GVC 해외 이슈

■ **【공급망·투자, 미국·중국】 美 정부의 기업 해외 투자 통제, 생명공학·배터리는 제외 전망**

- 1.12일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추진하는 美 기업의 해외 투자 통제가 양자컴퓨터·인공지능(AI)·반도체 등 일부 산업으로 국한될 전망이라고 보도, 생명공학·배터리 기술은 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작성 중에 있으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22.12월 중순 주요 장관들을 만나 행정명령 초안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
 - 행정부가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마치기를 원하고 있어 행정명령 발표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음 (특히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행정명령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동맹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
 - * 재무부는 미국 내 외국인투자를 승인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산하에 두고 있고, 기업이 거래하면 안 되는 제재 명단을 관리하고 있어 새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
- 또한 온라인매체 세마포는 美 정부 관료들이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뿐 아니라 중국인이 창업자인 기업에 대한 투자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했다고 언급, 이 경우 미국에서 유학했거나 오래 근무한 중국 국적자가 창업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될 수 있음

출처: 연합뉴스(22.1.13), 한국경제(22.1.13)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원자재, 중국】 中 '리오프닝'으로 구리 등 원자재 가격 강세**

-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반등, 적극적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으로 구리, 철광석, 알루미늄, 아연 등 건설자재 중심의 원자재 강세 지속 예상
 - (구리) 국제구리가격은 '22.6월 이후 7개월만인 1.11일 장중 \$9,000/t 이상[런던금속거래소] 치솟았으며, 3거래일 연속 상승하여 1.13일에는 \$9,185.5/t 기록. 연말까지 \$11,500/t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 [제프 커리 골드만삭스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 부문 대표]
 - (철광석) 벤치마크 지수인 칭다오 현물 가격이 \$120/t 수준으로 '22.6월 이후 약 50% 상승, 최근 몇 달간 재고량이 적었던 중국 제철기업들이 재고 비축을 늘리고 있는 점도 향후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알루미늄/아연) 알루미늄 1.11일 기준 지난 3거래일간 벤치마크 가격 기준 10% 상승, 아연 동기간 5% 상승
- 캐롤라인 베인 캐피탈 이코노믹스 원자재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의 모멘텀이 살아나도, 미 연방 FED의 긴축 완화가 연말경 현실화되면 원자재 가격이 연말까지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 예상
 - 미국, 유럽의 '23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오히려 원자재 투자 수요 확대를 견인할 요인'이란 분석도 존재, 세계은행(WB)은 '23년 미국과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5%, 0%로 제시[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1.9%p↓]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의 긴축 지속이 어려워지고, 달러 약화 → 원자재 투자 수요↑ 전망
- 반면 일각에선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경제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존재, 구리,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단기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
 - 호주계 투자은행(IB) 맥쿼리 그룹에 따르면 원자재 수요를 견인하는 중국 부동산 부문의 신규 건설은 지난 10년내 최저 수준, 마르쿠스 가비 맥쿼리 금속·원자재 전략 수석은 “(중국의) 건설 부문이 매우 취약하다. 신규 건설 부문에서 얼마나 개선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분석

출처: 매일경제(23.1.16), 한국경제(23.1.13), 아시아경제(23.1.12)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반도체, 일본】 TSMC, 일본에 제2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검토

- 1.12일 니혼게이자신문에 따르면 대만 반도체 생산업체 TSMC 최고경영자 웨이저자는 온라인으로 열린 '22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본 내 반도체 수요가 충분하고 일본 정부가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추가 공장 건설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함
 - TSMC는 현재 일본 소니그룹, 덴소와 함께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 일본 내 첫 반도체공장 건설 중으로, '24년 말 생산라인 가동 예정. 일본 정부는 1공장 건설 총 투자 규모 86억 달러(약 1조 1,000억 엔, 약 10조 6,880억 원) 중 약 4,760억 엔(약 4조 5,824억 원)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
 - TSMC의 日 제2 공장 건설 검토 관련하여 1.13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日 경제산업상은 "대단히 환영한다. 어떠한 지원이 가능할지 생각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
- 한편 TSMC는 지난달('22년 12월) 美에 제2 반도체 공장 건설계획을 밝힘
 - 현재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를 투자해 1공장 건설 중인데, 추가로 280억 달러를 투자해 최첨단 3나노 칩을 생산하는 제2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
 - 美 바이든 대통령은 "TSMC, 애리조나주 역사상 가장 큰 외국인 투자로 400억 달러 투자, 10,000개 이상의 건설 일자리와 10,000개의 첨단기술 일자리 창출될 것"이라고 언급
- TSMC의 공장 건설에 따라 美·日·대만 세 나라의 밀월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분석

출처: 일본경제신문('23.1.12/13), YTN('23.1.13) 등 언론보도 KOTRA 도쿄무역관, 무역협회 종합

■ 【반도체, EU】 TSMC,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

- TSMC는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 공장 신설 가능성 평가를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발표
 - TSMC는 지난 12월 보고서에서 자동차용 22나노미터 및 28나노미터 반도체에 중점을 둔 생산공장을 드레스덴에 신설하기 위해 사전협상 중이라고 언급
 - TSMC는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 조건으로 반도체 수요 및 정부 지원을 언급했는데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EU 반도체 산업보조금 지급기준인 '독창성 수준(first of a kind facility)'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
- EU는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생산점유율을 20%로 확대하기 위해 '반도체 빅쓰리(인텔,삼성,TSMC)'의 역내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 중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3.1.16)

■ 【반도체, 대만】 대만판 반도체법 통과, R&D 세액 공제 15% → 25% 등 지원 연내 시행 예정

- 대만 자유시보, 블룸버그통신 등은 대만 입법원이 1.7일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켜, 첨단산업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비의 25%, 설비투자의 5%를 세액공제할 예정이라고 보도
 - 개정안에는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5G), 전기차 등 첨단산업 기업에 대해 연간 R&D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25% 확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안은 '23.1.1~'29.12.31 시행 예정
 - 첨단 공정을 위한 새로운 장비 구매 등 설비투자에도 5%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R&D 투자비용과 설비 투자를 합한 총 세액공제액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영업소득세의 50% 초과 불가
- 대만 경제부는 1.7일 성명에서 "美·日·韓·EU가 모두 자국 공급망 구축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대만은 핵심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개정안은 대만 기업들이 국내에 뿌리 내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임
 - 법안 통과 후 대만 첫 거래일인 1.9일 세계적 파운드리 업체 TSMC 주가는 4.91% 급등, 대만 자취안 지수도 2.64% 상승 마감

출처: 자유시보('23.1.8), 블룸버그('23.1.9), 세계일보('23.1.10) 등 언론보도 KOTRA 타이베이무역관 종합

■ 【구리, 인도네시아】 인니, '23.6월부터 구리 원광 수출 금지

- 1.10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투쟁민주당(PDI-P, 집권여당) 설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올해 6월부터 구리 원광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 발표
 - 금년 원광 수출 금지가 예고된 광물은 보크사이트, 주석, 구리 등으로, 구리는 '22.1월에도 조코위 대통령이 수출 금지를 언급한 바 있음
- 반면 프리포트인도네시아(Freeport Indonesia), MIND.ID(인니 국영 광산 지주회사)등 산업계는 구리 원광에 대한 국내 제련 수용 능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
 - 프리포트인도네시아가 건설 중인 구리 제련소*는 '24년에나 가동 예정으로 수출 물량을 인니 국내에서 모두 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 * 동부 자바 그레스(Gresik)에 위치, 단일라인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 '21년 착공 후 現공정률 50% 수준
- (인니 구리 생산) '21년 기준 매장량 2,400만 톤(세계 10위), 정광 생산량 81만 톤(9위)
- (인니 구리 수출) '21년 기준 정광 수출 56만 톤(세계 3위)으로 인니 주요 수출품, 주요 수출국은 일본, 중국, 한국, 인도, 태국 순으로 對한국 수출 증가세
- (정책) 新광업법('09년 제정, '14년 시행)에 따라 수출 전 가공 의무화, 무역부 장관령 18호('21년 제정)로 '23.6월 부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

출처: 자카르타지통신('23.1.10) 등 언론보도 및 USGS, WBMS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종합

■ 【팜오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EU의 '삼림 공급망실사법' 시행 대응으로 팜오일 수출중단 시사

- 말레이시아 파딜라 유소프 부총리 겸 플랜테이션 산업부 장관은 1.12일 EU의 '삼림 벌채 및 황폐화 방지법(삼림 공급망실사법)'을 차별적인 무역장벽이라며 필요 시 EU로의 팜오일 수출 중단을 시사
 - * 말레이시아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작년 전체 팜오일 수출의 9.4%인 147만톤을 EU에 수출, 이는 전년 대비 10.5% 감소치
- 지난 12월, EU는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오일, 대두, 목재, 고무, 목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의무를 도입하는 '삼림 벌채 및 황폐화 방지법'을 확정
- 법 시행에 따라 말레이시아와 인니의 주요 상품인 팜오일 및 팜오일 파생상품(바이오디젤 제외)의 EU 수입 시 수입품이 '20년 12월 31일 이후 벌채 등으로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함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3.1.16)

■ 【보조금, EU】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 IRA법 대응으로 보조금 제도 개편 제안

- 마거릿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1.13일(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대응책으로 EU보조금 규정 개정을 제안
 - EU는 IRA법의 보조금 영향 및 유럽의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EU기업과 투자가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
- 동 제안에는 현행 보조금 프레임워크 변경*을 통한 ▲보조금 계산 간소화 ▲지급 승인 신속화 ▲지급 범위 확대(모든 신재생에너지 기술 포함)등의 내용이 포함됨
 - * (현행) '한시적 위기 보조금 프레임워크(State Aid Temporary Crisis Framework)' → (변경 안) '한시적 위기 및 (에너지·친환경)전환 보조금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 또한,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회원국 간 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 여력의 차이에 따른 역내 시장 왜곡 가능성 차단을 위해 EU 차원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3.1.17)



GVC 뉴스 더하기 ① : 2023년 한-미 주요 공급망 이슈

◆ '23년에도 풀어나가야 하는 다양한 공급망 현안이 존재한다. KOTRA 워싱턴무역관이 꼽은 '23년 한-미 주요 통상 이슈 중 공급망 현안 관련 사안을 살펴보자

■ 미국 최대 친환경 산업 투자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미 재무부, 전기차 보조금 혜택 세부 규정 발표 (22.12.29)

- 리스와 렌트, 택시 등으로 사용되는 전기차는 생산지와 상관없이 보조금 대상에 포함(단, 재판매 목적의 차량은 제외)

◆ [주목대상] 전기차·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산업 종사 기업

- (전기차) '23.3월 지침에 따라 공급망·생산·수출전략 변경 필요

* 한국의 對중국 이차전지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 약 80%(대한상의, '22.12월)

- (태양광·풍력) 3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재정지원 예정, 진출기회 확대

☑ [체크포인트] (23.3월) 배터리 핵심광물·부품 등 지침 공개

☞ 대중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광물 규제의 유연화 여부 주목 필요

■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 미국, 반도체법 내 가드레일 조항과 산업안보국의 첨단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대중 수출 통제 (22.10.7)로 중국 반도체 굴기 차단

- 중국, 미국의 수출통제에 대해 WTO 제소('22.12.12)

- 日 니시무라 경산상, 첨단반도체 공급망 관련 美 상무부 지나 레이몬드 장관과 회의 진행('23.1.5)

◆ [주목대상] 반도체 산업 유관 기업

- 美 상무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중국 현지 생산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한 바 있으나 '23.10월 중 만료 예정

- 일본과 네덜란드가 對중국 반도체 제재 참여 가능성이 높음

- 美 의존도가 높은 대만이 이례적으로 중국의 WTO 제소에 동참한 상황

☑ [체크포인트] (23.4.7) 중국 반도체 수출허가 임시 라이선스 만료

(23.10월) 한국기업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만료

■ 우려국 첨단기업 투자 규제의 한국 기업 활동에의 영향

- 국가핵심역량수호법(NCCDA) 관련 법령 입법 추진

-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국가핵심역량 관련 우려국 대상의 투자 모니터링을 강화, 우려국의 경쟁력 및 공급망 탄력성 약화 추진 → 미국 자본이 투자된 한국기업의 투자도 모니터링 될 가능성 있음

- 마-중 갈등 참여화로 초당적 의회지지 속에 미국의 對중기술 규제 확대 강화 유력 → 의회 입법이 아닌 행정 명령으로 조기 도입될 가능성 있음

◆ [주목대상] 반도체, 배터리, 주요 광물, 의약품,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바이오 관련 기업

- 미국 자본이 투자된 한국기업의 투자도 모니터링 대상이 될 가능성 있음

☑ [체크포인트] (연중) 對중국 투자규제 입안 가능성

(연중) 對중국 수출통제 범위 확대(바이오, 친환경 산업 등) 가능성

■ 미국의 첨단 제조업 역량 강화와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 바이든 정부, 산업 전반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확산, 인프라법,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입법에 더해 바이오기술제조 행정명령(NBBI) 서명, 미국 제조업 기반 확충에 전념

* 바이든 "미국이 개발한 모든 것이 미국 내 생산 될 수 있도록 하겠다" (22.9.12)

- 동맹국가 간, 기술·인적 교류 강화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

◆ [주목대상]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 관련 기업

- 미국 내 제조기반 강화를 위해 미국 진출기업 대상 투자 인센티브 강화 예정
- 희토류, 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규정 강화 가능, 공급선 다변화 검토 필요

☑ [체크포인트]

- (연내) REEShore Act of 2022 / Rare Earth Magnet Manufacturing Production Tax Credit Act of 2022의 **再발의 여부**

☞ 양 법안 모두 117대 회기에서 상·하원 동시 발의, 118대 회기에서 再발의 가능성 높음

- (23.1분기) 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ACT (※EU법안)

☞ 배터리 관련 주요 광물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구축 목적의 법안으로 업계의 관심·대비 필요

■ 미-EU 공급망 재편 협력 추진

- '22년 3회 협상을 통해 의제 구체화, 상반기 내 다음 회의 개최 예정

- 제3차 회의(22.12.5)에서 반도체 공급망 탄력성 강화 등 기술·산업 분야 협력 강화와 중국의 비시장경제 관행 해결 등 우려국에 대한 공동 대응 확대에 대해 공동 성명 발표

- 양국 간 협화된 디지털 무역, 기술 표준, 친환경 관련 의제가 IPEF에 채택 시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 높음

◆ [주목대상] 데이터, 반도체 관련 기업 등

- 미 국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 주요 부처 참여, 우려국 수출 통제 등 미-EU 간 주요 현안 논의의 장으로 격상

- 바이든 '대서양 횡단 데이터 정책 프레임 워크' 규칙 이행 행정명령 서명(22.10월)에 따른 EU GDPR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미국 내 확대 적용 가능성 유의

☑ [체크포인트] (상반기 예정) 제4차 미-EU 무역기술위원회 개최(스웨덴)
(연내) 제5차 미-EU 무역기술위원회 개최(미국)

■ IPEF, 미국 중심의 新통상 질서 출범

- 연내 14개 회원국 간 협상으로 구체적 성과 도출 목표

- 역내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 디지털 등 규범 및 협력체계 구축 노력
-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新통상이슈 중심의 규범 및 협력방안 논의

◆ [주목대상] 산업 전반

☑ [체크포인트] (23.2.8~10) IPEF 2차 협상 개최(인도)
(연중) APEC 정상 회의(미국)

☞ 미국에서 개최되는 APEC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룰 가능성 高



GVC 뉴스더하기 ② : EU, 美 IRA 대응 Clean Tech Act 입법 추진

◆ EU집행위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11일 EU집행위원단 회의에서 **역내 산업 지원 위한 청정기술법(Clean Tech Act) 관련 구체적 구상을 설명**,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2월 EU 정상회의에서의 논의를 예상하는바,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 EU집행위,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에너지가격 대응 위한 청정기술법(Clean Tech Act) 추진

- EU집행위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의 IRA 및 높은 에너지가격 대응을 위해 이른바 청정기술법(Clean Tech Act) 도입을 추진, EU 회원국의 조율된 입법적 대응과 27개 회원국 모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친환경 보조금 도입 등을 강조**

-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이 스페인, 벨기에, 폴란드 총리와 회담을 통해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 중으로 언론 보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진 바 없음

추진 방향

· 미 IRA에 대응해 **EU 반도체법과 유사한 접근 방식의 공동 정책 마련**

· 모든 회원국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EU 공동 기금 조성**

- 국가 보조금 허용 시 프랑스, 독일 등 부유한 국가와 포르투갈, 그리스 등 그렇지 못한 국가 간 보조금 지급 규모 차이가 발생해 EU 단일시장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해결책

· **주요 전략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지원 및 IPCEI 가속화**

- 특히, 보조금 지급이 용이한 IPCEI 승인이 최대 2년까지 소요되는 문제점 등 관련 절차와 허가의 신속한 발급의 중요성을 지적

* IPCEI(유럽 공동 관심분야 프로젝트) : EU의 대표적인 산업 정책으로 정책목표와 관련된 산업을 지정, 프로젝트를 선별해 예외적으로 국별 보조금 지급을 허용

■ 관련 의견 및 향후 전망

- 한편 브르통 위원의 제안은 '23.1.4일 **프랑스가 발표한 자체 친환경 산업 지원 정책과 방향이 유사할 것으로 전망**

-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美 IRA 대응 친환경 산업 투자 및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발표한 정책으로, 수소·배터리·원자력·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세금 공제,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도입, 산업시설 구축 촉진 예정

- **EU 산업 정책 및 보조금 개편 방안은 '23년 1분기 중 구체화 전망**

- 폰테라이엔 EU집행위원장,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1.16~20)에서 유럽 산업정책 세부 방향 발표 예정으로, 동 산업정책의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2월 EU 정상회의 통해 논의 예상

- EU집행위는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 예정**(본 지 '최신GVC 해외이슈'의 (보조금, EU)내용 참고)

- **일각에서는 국가 보조금 확대 및 기금 마련에 대한 비판적 시각 제시**

-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담당 집행위원, '22.12월 보조금으로 경쟁력을 살 수 없다며 유럽의 단일시장이 가장 중요한 자산을 강조

- 상반기 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 보조금 관련 일부 회원국의 시장개입에 대한 우려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언급

- 집행위원장이 '22년 국정연설서 발표한 역내 친환경 산업 지원 위한 유럽주권기금*의 구체적 법안이 여름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나, 한 집행위 인사는 언론을 통해 기금을 조성할 돈이 없다며, 초기에 보조금을 투입하되 이후부터는 민간 투자를 유치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

* 유럽주권기금(European Sovereignty Fund)은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터리·반도체 등 EU 전략 산업에 대해 IPCEI의 추가 지원을 위한 기금임

GVC 돋보기 :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을 위한 비축사업 1편 - 석유 비축

※ 최근 러-우 사태, 자원민족주의 확산 등으로 에너지자원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석유·광물 등 주요 에너지·자원 비축 현황에 대해 살펴보자

<국내 에너지·자원 비축>

43호 : 석유 비축

44호 : 금속 비축

■ 석유비축 개요

-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석유 순수입국, 세계 8위 석유 소비국(21)임에도 높은 증동 의존도, 낮은 자주개발률 등으로 위기 대응능력이 주요국 대비 취약

- 지난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1차 '73, 2차 '78)는 우리나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엄청난 충격 초래

⇒ 정부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1980년부터 원유·석유 제품 등 석유비축사업 추진

- (법적 근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 (주요 경과) 1979년 한국석유공사 설립 → 1980년 정부 석유비축사업 개시 → 1993년 석유비축 범위를 민간으로 확대(정유사·수입사에도 비축 의무화)

<국내 석유비축기지(한국석유공사)>



■ 석유비축 현황

- (비축물량) 현재 정부는 96.7백만배럴 규모의 비축유 확보(민간 비축물량 제외) = IEA 국제기준 적용시 추가 외부 석유도입 없이 111일 국내 사용가능한 물량

- 정부 비축유는 국가별 IEA 석유비축량 권고기준인 90일 이상 상회 ⇒ '25년까지 비축유 1억 배럴 확보 목표
- * 주요국 석유비축 물량(백만B, 지속일수) : (美) 568백만B (30일분), (日) 400백만B (194일분)

- (비축기지) 울산, 거제, 여수, 서산, 구리, 평택 등 총 9개 비축기지 보유(총 146백만배럴 규모)

■ 비축유 방출 실적

- 1980년 석유비축 개시 이후 걸프전,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국내·외 석유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 등과 공조하여 총 6차례 비축유 방출

- 국제에너지기구(IEA) : 석유 공급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OECD 회원국 중심으로 '74년 설립된 에너지협력기구

* (회원국)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 31개국

구분	걸프전 ('91)	허리케인 카트리나 ('05)	리비아 사태 ('11)	미국 동맹국 공조 ('21.12)	러-우크라이나 침공	
					1차('22.3)	2차('22.4)
방출 물량 (만 배럴)	494	291.6	346.5	317	442	723



GVC 전문가 : 핵심광물 공급망 이슈와 주요국의 광물 확보전략 2편

- 한국무역협회 박가현,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전략과 시사점」보고서 요약

◆ 미국은 '21년 핵심광물을 포함한 4대 주요품목 공급망 검토 이후 자국 내 광물 생산역량 강화와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핵심광물 현황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알아보자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전략〉
 (42호) 핵심광물의 활용과 수급이슈
(43호) 주요국 확보전략(미국)
 (44호) 주요국 확보전략(EU,중국)

1. 미국 핵심광물 현황

- 美지질자원국(USGS)은 2018년 이후 주기적으로 광물의 수급, 생산집중도,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주요 광물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있음
- 2022년 지질자원국은 기존 35종에서 50종으로 대폭 확대된 핵심광물 개정안을 발표함
 - 희토류 17개 중 14개 원소를 개별적으로 지정하였으며 백금족(6개)도 5개 원소를 각각 지정
 -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2018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니켈과 아연을 새로 포함시키고, 기존 품목 중 5개 품목(헬륨, 칼륨, 레늄, 스트론튬, 우라늄)은 제외

2. 미국 핵심광물 확보전략

■ 미국 내 핵심광물 생산·제조역량 강화

- (자국 내 채굴 및 가공기술 강화) 美정부는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IIJA,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을 통해 지질자원국에 '26년까지 5.1억 달러를 배정하여 자원탐사, DB 구축, 광물시설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며, 광물 가공 시설의 내재화를 위해 노력 중
- (배터리 등 미래산업용 핵심광물 투자) 인프라법(IIJA)에는 핵심광물 관련 기술개발, 생산확대, 배터리부품 제조 등을 위해 에너지부가 5년간 7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
- (재활용 확대) 핵심광물의 공급망 강화 검토 보고서에서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에 설계 표준 채택 독려, 주정부·지자체의 단일 수거 절차 마련 등의 정책을 제안

■ 우방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사슬 구축 - 자국내 생산이 어려운 광물을 중국 이외 국가로부터 조달하기 위해 다자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우방국 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 연결을 추진

- 바이든 행정부는 4대 품목 공급망 보고서에서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각 국가별 공급망 현황을 파악하고 중국 이외의 국가를 활용한 공급망 연결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음
- EU, 일본, 호주 등 우방국 중심의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연결 노력도 꾸준히 진행중
 - '21.3월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희토류 교역 관련 규정 신설, 생산기술 공동개발, 각국 비축량 보고 의무화 등을 검토
 - '22.6월 10개국(한국, 호주, 캐나다, EU 집행위, 일본, 독일 등이 포함)이 참여하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을 출범시키고 주요 광물의 생산, 처리, 재활용에 이르는 전체 공급사슬을 연결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발표
 - 이 외에도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내 공급망 분야, 미국·유럽·일본 3개국과의 연례 핵심광물 포럼 등 국제적 협력 강화

**더 찾아보기: ① 美 前상무부 차관보 Kevin Wolf가 말하는 수출통제 프로세스 2편**

◆ '22.12월 KOTRA 워싱턴무역관 및 주요 언론 현지 특파원단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수출통제 담당 차관보로 근무한 Kevin Wolf 인터뷰를 진행했음. 美 수출통제 전문가가 바라본 미국의 중국 수출통제와 현지 산업 동향, 한국에 미칠 영향 등을 2편에 걸쳐 살펴보자.



〈유튜브 시청 링크〉

Q :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해외 기업들에게 1년이라는 유예기간 (미국 반도체법의 인센티브 수취 필수조건인 중국 內 반도체 설비 투자 금지(가드레일 조항))이 주어졌습니다. 1년 후에는 이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미국보다 생산 비용이 저렴한 중국 외 지역으로 반도체 제조시설이 건설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A : 일 년 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美 정부가 이러한 기업들에게 장기적인 정책을 결정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美 정부에게는 한국 및 다른 동맹국 정부와 협력하여 어떻게 변화하고 조정해야 하는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美 정부는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해 등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美 정부는 기업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현재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수년의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부여할 것으로 추측합니다. 물론 왕관보석(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 한국에 있고, 중국에 별도 지원을 하지 않으며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거나 생각하는 방법이 없다고 확신한다는 전제하입니다.

Q : '22년 12.5일 제3차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TT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에서 CBAM 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EV 세액공제, 러시아 제재와 같은 의제를 다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및 세계 안보 측면에서 美에게 가장 중요한 의제는 무엇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A : 모두가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 (TTC 회의에서는 수출통제가 다루지는데) 역사적으로 수출통제가 동맹국들과 진행되는 어떤 무역 회의 등에 포함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수출 통제는 항상 다자체제 혹은 양자 집행을 통해서만 다루어져야 하는 순수한 국가안보 문제였고, 완전히 분리되어서 취급되었습니다. 수출통제가 상호 교환의 차원이 아닌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 IRA에 따른 EV 세액공제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를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IRA에 약간의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미국이 한국, 유럽연합,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A : 아직까지 그 어떤 결정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美 재무부는 어떤 규칙이나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23년에 발생할 수 있는 조정(수정) 필요성에 대해 일반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법안에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23년에 법안 자체를 수정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출통제 결정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더 광범위한 경제적인 고려나 보호주의적 관점보다는 중국의 행동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알아보기 : ②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 - 美 마이크론 투자유치 사례 분석 산업통상자원부 황승완 서기관 투고

미국에서는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된지 얼마되지 않은 22년 10월, 마이크론사는 뉴욕주 중부지역에 위치한 오논다가 카운티(Onondaga County)의 작은 도시인 클레이(Clay)에 1,000억 달러(한화 130조원, 환율 1,300원 기준) 투자를 발표했다. 이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의 큰 성과로 홍보되었다. 엄청난 규모의 투자 계획이다보니 미국 전역으로도 뉴스 보도가 이어졌으며, 시라큐스 지역에서는 발표 이후 몇 달간 지속적으로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분석과 함께 투자 유치의 원인들에 대한 뉴스가 이어졌다. 이에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미국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력을 살펴보고, 대규모 투자 유치의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다.



◀ 투자 발표회 당시 사진 (왼쪽부터 주지사, 마이크론 CEO, 척 슈머 상원의원, 출처 Syracuse.com)

투자 계획 발표는 시라큐스 대학에서 이뤄졌는데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 주지사과 산제이 메로트라(Sanjay Mehrotra) 마이크론 CEO가 참석하였으며, 같은 달 27일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시라큐스를 방문하여 마이크론의 투자 결정을 환영하는 연설을 했다.

마이크론 투자의 지역 경제적 효과를 우선 살펴보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반도체 공장을 통해 발생하는 직접 일자리는 9천개로** 예상되며, **간접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4~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발표되었다. (현재 오논다가 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곳은 업스테이트 대학 의료시스템(Upstate University Health System)으로 9,500여 명을 고용하고 있고, 2위는 시라큐스 대학으로 4,600명 수준이다. 마이크론은 향후 오논다가 카운티에서 민관을 통틀어 1,2위의 고용주가 될 전망이다.)

미국 국가 측면에서도 마이크론의 투자는 **반도체 공급망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마이크론은** 한국 반도체의 주력 상품인 **D램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은 세계 3위 기업**으로, 그동안의 연구개발은 미국에서 주로 이뤄지고 실제 반도체는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었다. 이번 투자 결정 과정에서도 마이크론이 해외 투자 및 미국내 투자를 모두 고려하였지만, 미 의회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통과에 따라 대규모 반도체 생산공장을 미국에 설립하기로 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메모리반도체의 상당 부분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충당될 수 있을 것이다.

오논다가 카운티는 투자 확정 이후, 마이크론과의 투자유치 협상이 단 시간내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1년 반 가량 **투자 유치를 위한 긴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언급했다. 협상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당연히게도 돈과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한다. 뉴욕주는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어 중부·서부 주들에 비해 **땅값이 비쌀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뉴욕주의 시라큐스 지역이 텍사스 등 경쟁지에 **우위를 가지는 부분은 삶의 질 부분**이었다고 한다. 마이크론의 부지 평가팀은 후보 지역을 **현지 방문하여 평가하였는데, 조용하고 안전하며 대학도시로서 고급인력이 풍부한 시라큐스를 살고 싶은 도시로** 평가하며 좋은 점수를 주었다고 한다.

이 곳이 반도체 공장을 짓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점도 큰 메리트였다. **첨단 반도체 공정은 엄청난 양의 전력과 물을 필요**로 한다. 시라큐스 근처에는 765kV의 **고압 송전선이 지나고 있으며**, **오대호 중 하나인 온타리오 호수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마이크론 반도체 공장은 향후 필요한 물(하루에 2천만 갤론)의 절반을 온타리오 호수에서 끌어올 예정이며 나머지 절반은 폐수를 처리한 물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카운티는 **추가적으로 2억 달러를 들여 폐수 처리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 투자 예정지 사진 (출처 Syracuse.com)

카운티 정부에서 수년간 전략적으로 광활한 공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미개발 상태의 대규모 습지를 사들였다. (3년 전, 총 2,500만 달러를 들여 399에이커의 땅을 구매하고,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주변 땅을 사들여 1,400에이커 규모로 땅을 확보하였다.) 지방정부가 기업 대신 땅을 매입하자 기업이 직접 민간 땅 주인과의 매수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 투자가 훨씬 쉬워졌다. 마이크론은 카운티로부터 이 땅을 3천만 달러에 구매하기로 계약하였다.

오논다가 카운티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마이크론 투자 프로젝트를 대비하기 위해 수 십명의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엔지니어링 회사인 Ramboll사와 부지 컨설팅 계약을 맺었고 Spectra Engineering사는 환경 규정 검토를 맡았다. 외부 컨설팅을 통해 좀 더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지역의 투자 여건을 평가하여 마이크론에 제시할 수 있었다.

좋은 부지여건 및 지방정부의 실무적인 노력 이외에도 정치적인 부분도 투자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최근 미국에 반도체 공장 투자가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22년 8월 통과한 반도체 지원법 덕택이다. 이 법은 미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신규 투자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을 주로 담고 있다.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기업당 최대 30억 달러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최대 25%의 연방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세금 환급에는 상한선이 없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이 법을 제안하고 통과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Sen. Chuck Schumer)이라는 점이다. 그의 지역구가 바로 투자지역인 뉴욕주이며, 그는 CNBC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반도체 지원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론 CEO와 50번 넘게 통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방정부 및 정치권의 노력 외에도 지역 정치권의 노력도 더해졌다. 뉴욕주 의회는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한 직후인 22년 8월 “Green Chips 법”을 통과시켜 마이크론이 연방 세금 공제 외에 향후 20년간 58억 달러 규모의 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카운티에 납부하는 재산세(Property tax)도 향후 49년간 2억 84백만 달러를 감면받아 총 8천450만 달러만 납부하면 된다. (source : Syracuse.com. “Micron would get \$284M tax break under proposed county deal”. 22.10.30)

마이크론이 향후 계획대로 20년간 1,000억 달러의 투자와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연방정부, 뉴욕 주정부 및 카운티 정부 등으로부터 약 9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연방정부 보조금 30억 달러, 주정부 58억 달러 세액 공제 등을 포함하며, 이와 별도로 연방정부의 25% 세액 공제는 향후 확정될 예정이라 총 지원 규모는 9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source : Syracuse.com. “Micron eligible for at least \$9 billion in incentives for Clay project amid industry downturn”. 22.10.9)

이상으로 마이크론사의 반도체 공장 투자건의 효과 및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바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분야 투자와의 비교이다. 흥미롭게도 이번 마이크론 투자건과 아주 비슷한 투자계획 발표가 '19년에 있었다.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시에 120조원을 투자하여 4개의 반도체 공장(FAB)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건설이나 투자 규모가 마이크론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SK하이닉스의 투자계획에는 대기업의 반도체 공장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부지 내에 소재, 부품, 장비 등 연관기업이 입주,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반도체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당시에도 용인시로 투자 위치를 결정한 이유가 전력, 용수 등 인프라 확보에 유리하며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워 전문인력 유치에 강점이 있었기 때문으로 시라큐스 지역의 마이크론 유치 요인과 비슷하다. 다만 SK하이닉스의 투자는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는데 민간 부지 매입 및 인근 지역과의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 절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론의 투자건도 계획 발표 이후 급격하게 악화된 반도체 업황으로 인해 당초 대비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미국내 관측도 있다. 앞으로 두 건의 투자가 어떻게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며, 두 국가의 반도체 공급망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GVC 소식통 ① : 공급망 관련 지원 사업 안내

■ 2023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 GMEP

- 국내기업의 글로벌 의료기기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상담회, 설명회 등

- 일시/장소 : 3. 23일(목) ~ 3. 24일(금) / COEX 전관 (GMEP - E홀 / KIMES - A, B, C, D 홀)
- 사업 규모 : 의료기기 바이어 100개사, 국내기업 200개사
- 모집 기간 : **1. 31일(화) 限**
- 모집 대상 :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의료기기 기업
- 행사프로그램

수출상담회		설명회
3.23(목) 1일차	* 1:1 비즈니스 상담회 - E홀 GMEP 바이어 상담부스	* 의료기기 등록제도, 해외시장진출전략
3.24(금) 2일차	* 국내기업 전시부스 방문 상담회 - A~D홀 KIMES 전시장 내 우리기업 부스	* 국내 의료기기사 설명회(IR)

- 참가 신청 : [1. 2023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클릭\)](#) 내용 확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2. GMEP 홈페이지 수출 상담회\(클릭\)](#) 내용 확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 * 1,2번 방법으로 모두 신청을 완료 해야만 정상 신청가능
- 참고 사항 : KIMES 전시 부스 미참가 우리기업은 1일차 상담에만 참여 가능
계약 체결 가능 바이어(USD10만불 이상) 초청 희망 시 방한 지원 가능 (KOTRA 사전 협의 필요)
- 문의처 : KOTRA 바이오의료팀 ☎ 02-3460-7622~3 / me_hq@kotra.or.kr

■ ICT컨소시엄 수출지원사업 - 컨소시엄 모집

-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한 국내 ICT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위해 타깃 지역별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 전문가를 활용, 컨소시엄 희망 해외마케팅을 밀착 지원하는 ICT프로젝트 수주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 3. 1일(수) ~ 12. 31일(일)
- 지원 대상 : 중소·중견·대기업, 협회, 기관 등 2개사 이상 구성된 ICT컨소시엄
- * 간사기업(대표기업)은 반드시 중소·중견 기업이어야 함
- 주요 분야 : AI, 5G, 보안,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이러닝 등 구체적 지역 타깃으로 한 ICT 프로젝트
- 주요 내용 : (1:1 전담지원) 프로젝트별 담당 해외무역관 및 전담직원 배정
(프로젝트 발굴) 현지 정보제공 및 신규 바이어·발주처 발굴, 상담주선
(수주 활동) 컨소시엄별 국내외 마케팅활동 지원 및 입찰·수주 관련 법률/세무검토 지원
- 모집 기간 : **2. 8일(수) 限**
- 신청 방법 : [ICT컨소시엄 수출지원사업\(클릭\)](#)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과 우편접수 동시 제출
- * 이메일 주소 및 우편접수처는 위 링크에서 확인 가능
- 참고 사항 : 1차 서류심사 및 2차 선정위원회(대면 평가)를 통해 '23.2월 중 최종 선정
참가신청 링크 내 첨부파일 세부 내용 확인 필요
- 문의처 : 접수 관련 ☎ 02-511-9070 / 사업 관련 ☎ 02-3460-7475



GVC 소식통 ② : 중국 단기비자 일시 발급 중단 관련 지원 사업 안내

■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 운영

-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따른 KOTRA의 긴급 지원 사업

- 지원 기간 : 1. 12일(목) ~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해결 시까지**
- 지원 대상 :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對중국 비즈니스 애로 보유 우리기업
- 지원 데스크 주요 내용

① (정보전파) 중국 관련 주요 이슈 모니터링하여 對중국 수출기업 지원 특별페이지 통해 실시간 안내

* 입국 및 중국 내 이동 관련 제한 조치 및 중국 '23년 新산업진흥, 소비 진작 등 주요 정책 동향 분석 및 공유

② (상담) 기업 애로 접수·지원 통합창구 운영

- 對中 수출기업의 애로 종합 접수 및 상담지원

* 긴급지원 사업 안내 및 지원, 사후관리를 통해 완결형 애로해소

- 對中 투자진출기업 애로 지원을 위한 심층 컨설팅 제공

* 법률, 회계, 물류 등 현지 한투센터가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비상근 전문가를 활용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여 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긴급 조치 등 대응책 마련

③ (공급망) 원부자재 소싱 애로 기업 대상 대체거래선 발굴 지원

④ (사업) 중국 출장 애로 기업을 위한 대행 서비스 긴급 지원

- (무료) 수출24 글로벌 대행서비스, 디지털마케팅 사업을 통해 바이어 발굴부터 해외 현장마케팅까지 지원

서비스명		지원내역	기존	특별지원(안)
수출 24	대리 면담 지원	• 수출 거래선과 대리 면담 수행	45만원	무료 (단, 기업 당 2건 한도)
	전시회 대리참관	• 중국 현지 전시회에 대리참관(바이어 명함 확보 등)	45만원	
	바이어 실태조사	• 수출 거래선(사무실, 공장) 대리방문, 현장 확인	45만원	
디지털마케팅		• 디지털마케팅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및 후속지원	130만원	무료(8주 지원)

- (지사화) 해외 현지마케팅 또는 긴급 현장 참여가 필요한 업무에 KOTRA 해외무역관 전담직원을 투입하여 안정화 시점까지 지원

서비스명	지원내역	지원기간	참가비
긴급지사화	• 입국 제한으로 직접 수행이 어려워진 해외마케팅 업무 대행 * 출장대행, 거래선 발굴·관리, 인허가 취득 지원, 샘플시연·상담, 현지 유통망 점검 등	3개월	90만원
디지털긴급해외출동 서비스	• 디지털 기기로 실시간 현장을 보여주며 긴급현안지원 * 긴급현장대응(장비 시운전, A/S, 현장실사), 바이어면담(제품시연), 전시회 참관 등	3일/회	25만원 (기존 50만원)

- 문의처 :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 특별 페이지\(링크\)](#)

KOTRA 대표전화 ☎ 1600-7119 > 5번 (휴대전화로 연결 시 2번(음성ARS) 누른 후 5번)

* 대표전화 통하여 세부서비스 상담 요망

글로벌 경제지표('23. 1. 18. 수)

[환율]

	'21말	'22.11말	'22.12말	1/13	1/16	1/17	전일비	22말비
₩/US\$	1,188.80	1,318.80	1,264.50	1,241.30	1,235.30	1,238.70	0.28	△2.04
선물환(NDF,1월물)	1,190.00	1,320.10	1,265.30	1,240.50	1,234.80	1,237.80	0.24	△2.17
₩/CNY	186.51	185.25	181.44	183.83	184.45	183.87	△0.31	1.34
₩/Y100	1,032.48	952.61	945.56	962.32	966.06	961.65	△0.46	1.70
Y/US\$	115.14	138.44	133.73	128.99	127.87	128.81	0.74	△3.68
US\$/EUR	1.1318	1.0345	1.0617	1.0838	1.0848	1.0828	△0.18	1.99
CNY/US\$	6.3681	7.1427	6.9630	6.7322	6.7081	6.7667	0.87	△2.82

* '22년 평균 환율: (₩/US\$) 1292.2원, (₩/¥100) 983.8원,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S\$) 1254.1원, (₩/¥100) 967.8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1.16 (전일)	'23.1.17				
					전일(1.10比)	'22년최저比	'22년말比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81.79	82.54	0.8	10.7	3.8	
					0.9%	14.9%	4.8%	
철광석	79.5(10.31일)	117.35	120.75	120.75	0.0	41.3	3.4	
					0.0%	51.9%	2.9%	
비 철 금 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9,145.50	9,114.00	△31.5	2114.0	727.0
						△0.3%	30.2%	8.7%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2,603.00	2,562.50	△40.5	482.5	202.0
						△1.6%	23.2%	8.6%
	니켈	19,100.00(7.5일)	30,425.00	27,100.00	26,750.00	△350.0	7650.0	△3675.0
						△1.3%	40.1%	△12.1%

[반도체]

	'21	'22	'22.10월	11월	12월	1/12	1/13	1/16	1월(~16)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2.41	2.16	2.05	1.94	1.94	1.92	1.97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9.9	△23.0	△32.4	△33.1	△40.3	△47.9	△48.1	△48.6	△47.0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57	6.53	6.53	6.54	6.54	6.54	6.54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4.7	10.7	△9.6	△11.2	△12.4	△13.4	△13.4	△13.4	△13.3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30	12.23	12.30	'23.1.6	1.13	전주(1.5比)	'21년말比
운임지수	5046.66	1107.55	1107.09	1107.55	1061.14	1031.42	△2.8%	△79.6%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2.23	'23.1.3	1.6	1.13	1.16	1.17	전일(1.16)比	'21년말比
운임지수	2217	1515	1250	1130	946	946	921	△2.6%	△58.5%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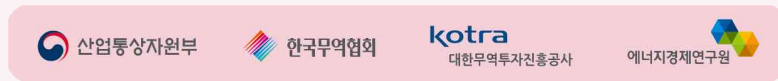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하단 URL 또는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제작기관



협력기관

